

군산시, 500만 관광객 시대 활짝

515만명 방문... 관광홍보 마케팅 주요인

민선7기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라는 테마로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과 고군산군도의 접근 편리성을 기반으로 2018년 11월말 기준, 관광객 수가 515만명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치인 500만명을 넘어섰다.

관광객 증가의 주된 요인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다수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구성 및 내용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한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관광지 및 관광명소마다 색다른 관광개발 사업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군산시는 500만 관광객 유치를 달성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내년도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당찬 포부도 밝혔다.

고군산군도 관광탐방지원센터의 완공으로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고군산 관광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비응향 해양체험 편익 시설 조성공사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관광도시라는 테마로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관광패턴과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갈 예정"이라며 "500만

관광객 유치를 넘어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숙원사업 결실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이었던 '소상공인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제 총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지방비 등 40억) 중 2019년 예산으로 국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

사업은 ▲신선제품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 ▲물품 판매대와 보관창고 ▲반품 및 선별장을 설치하고 아울러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한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연동하여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매출 감소와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이중고에 처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끝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군산시의 노력과 의지가 중앙정부에 전달된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억 6,000만원의 기본설계 예산을 시작으로 본 사업이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에 맞춰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2021 '소상공인 스마트 로지스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군산시가 지난 9월 특별교부세 13억을 확보한데 이어 1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올해에만 총 10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작년 대비 161.6%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7월부터 강임준 군산시장이 김관영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확보 사업으로는 ▲군산시립도서관 신축 10억 원 ▲농특산물 홍보센터 리모델링 3억 원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설치 2억 원으로, 특히 동부권, 서남권 지역의 도서관 기반 확충을 위한 시립도서관 신축 사업비 10억 원이 확보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고용 창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시간제 보육료·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료 인하 추진

익산시가 보육관련 돌봄 서비스 이용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영유아 가정 및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육아지원 서비스에 기여하던 두 서비스의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한해 시간당 1,000원에 이용 가능했다.

익산시 보육서비스를 위해 이용료 인하를 결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단,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한 주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한해 시간당 1,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서비스 이용료 인하가 영유아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익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올해 사업 종료·내년 3월 개장

군산시는 동절기 사고 예방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년을 기약하며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의 휴식기를 갖는다. 어린이들에게 더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지난 5월 19일 개장해 1만5,000여명이 시설을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전북 최초로 설치된 펌놀이 시설 바운싱돌을 이용하며 만족감을 느꼈으며, 산책할 수 있는 새만금 형상을 축소한 새만금 생태연못,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네트놀이대 및 조합놀이시설 등을 다양하게



군산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의 휴식기를 갖는다.

이용할 수 있는 테마놀이마당 등도 발길을 사로잡았다. 서평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어린이랜드를 안전하고 사용해주시는 방문

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찾아와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가 올해 각종 평가에서 상복이 터지는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전북도·기관에서도 '엄지척'

익산시, 복지부문·재난관리 등 각종 평가서 '상복'

익산시가 올해 각종 평가에서 상복이 터지는 등 최고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각종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민간 기관 평가에서 총 25개 부문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 사업비 1억 원, 시상금 9,470만 원 등 총 4억 4,47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먼저 매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문 평가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대상을 포함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우수상, 전라북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상 등 분야별 고른 성적을 거두며 다시 한 번 명실상부한 복지 수도로서의 명성을 유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예방접종사업, 공공보건으로 사업 등에서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휩쓸면서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여성가족혁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도 성과

를 내며 아동 여성 폭력방지 유공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시간제보육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의 결실을 맺어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8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익산시는 전북도 대표로 출전해 산림청이 주관한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익산시는 다시 한 번 산불진화능력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18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미래 농업을 견인하는 농업 선진도시로서의 면모와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여러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력을 다해 준 직원들과 시정발전에도 동참해주시는 시민들께서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도에 익산시가 전국 최고의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군산시는 2019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회 추진에 나섰다.

관계공무원과 위탁업체인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는 2018년도 사업결산 및 내년도 사업추진방향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개 보수 대상 255동에 사업비 10억 2천만원의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사업대상 85동 대비 300% 이상 대폭 확

대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이며, 해당 지원액은 최대 400만원 이내로 지붕개량, 도배, 장판, 창호 등 주거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되며, 12월 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